

# 위기를 기회로 살려 대한민국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망의 새천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IMF라는 국난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주변국의 우려를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2000년 초입에 이르러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IMF를 극복했습니다.

모두가 IMF를 맞아서 고통을 당하는 동안 우리 협회도 예외일 수 없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는 난관이 있었습니다. 함께 정들었던 동료들 떠나보내야 했고, 과중한 업무를 떠맡아야 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고통도 분담해야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오늘날 협회가 큰 흔들림 없이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임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가계에 부담을 안으면서도 여러분들을 훌륭히 내조하여 직장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행복한 가정 을 꾸미고 내조해 주신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흔히들 새천년에 대해 정보화시대, 지식이 기반이 되는 경제시대, 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옮겨 왔다 등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천년의 세기가 바뀌기 때문에 희망과 기대, 부푼 꿈, 거기에 빛의 속도에 버금갈 만큼 빠른 변화를 예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 등이 혼재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반드시 명암이 있듯이 새천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동시에 두려움도 갖게 하는 시대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 협회는 어떻게 해야 할 지 우리 협회를 뒤돌아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73년도에 법에 의해서 협회가 창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업무는 한 두개씩 줄어들게 되었고, 특히 예산면에서 보험 풀제가 하나 둘 풀려나가면서 왜소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630여 명에 이르던 직원이 현재 230여 명으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간부입니다. 상층구조는 있는데 하부구조가 없는 가분수적인 조직체계, 인사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란 무엇입니까? 유사한 업무, 같은 성질의 비슷한 조직을 통폐합하자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조조정입니다. 우리가 하는 방재에 관한 점검, 안전진단, 시험 및 인증, 계몽, 교육을 우리 외에 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명칭마저도 손보협회다, 화재협회다 하여 혼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각박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방재에 관한 한 대한민국에서 우리 화재보험협회가 일인자이고 전문가 집단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주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각박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각박한 현실 앞에서 주저하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 제일가는 방재공익기관이 되어야...

인터넷 파워, 이것은 빛의 속도로 변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파워는 사람의 생각이 빛의 속도로 변하고, 사람의 의지가 빛의 속도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좌절한다거나, 안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경진년 새해를 맞아서는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달성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적 방재공익기관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새천년은 우리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창출해 내는 개인과 집단만이 살아 남습니다. 그래서 창조정신을 살려서 대한민국 제일 가는 방재공익기관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에 앞서서 우리가 대변혁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변화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 변화의 선두에 서느냐, 중간에 서느냐, 말미에 서느냐, 아니면 그 변화에 그냥 휩쓸려서 가느냐는 4가지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자명합니다. 변화의 트렌드에 몸을 싣고 적극적이면 선두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변화가 아닌 대변혁을 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계발입니다.

지식 기반 경제시대, 인터넷 시대, 디지털 시대, 이는 전문가적 역량을 가진 사람의 시대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명실공히 전문가로서의 여러분이 사회 중심축에 우뚝 서기 위해서는 자기 계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과제입니다.

새천년을 맞아서는 여러분들이 다음 두 가지를 명심했으면 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변하는 것들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랑, 인내 그리고 희생정신과 같은 인간적인 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대망의 2000년은 고성장 고소득 시대가 아니라 저성장 저소득 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근검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각오를 다지며 새천년의 인터넷, 디지털로 지칭되는 시대에 걸맞게 연구·노력하는 한편, NFPA, UL, FM, IRI 등의 선진 방재기관들과 기술교류를 통해 얻어지는 최신 기술과 정보를 “防災와 保險”을 통해 애독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협회 업무에 많은 성원과 함께 防災와 保險을 아껴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0년 元卯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오 상 현